*영어어문교육 16*권 3호 2010년 가을

로버트 로웰 『인생연구』에 나타난 고백시의 특징*

양 현 철
(나사렛대학교)

Yang, Hyunchul. (2010). The characteristics of confessional poetry in Robert Lowell's *Life Stud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3), 253-268.

Robert Lowell is one of the major poets in the modern American poetic world. His major work, *Life Studies*, is a representative of confessional poetry. It presented American spiritual civilization and universality for life from the late 1950s to 1960s. It dealt with the subject of the poet's private life under the psychological pressure. Lowell described his distinctive vision of the relationship of painful world and suffering self in his poetry. An important feature of his confessional poems was the criticism on modern civilization by means of characterization. *Life Studies* was written as a kind of therapy to overcome his early trauma, as well as the social problems of contemporary Americans which Lowell was confronted with. Through his personal experiences, Lowell exposed and judged the collapse of traditional value and moral confusion in the society. Therefore, he is a poet who opened his own world of poetry with his poetic achievements.

[confessional poetry/family/civilization/confusion/life, 고백시, 가족, 문명, 혼동, 인생]

I. 서론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 1917~1977)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미국의 시대정신과 개인의 삶의 보편성을 주제로 자전적 형태의 고백시를 쓴 대표적인 현대 시인이다. 고백시는 미국의 비평가 로젠탈이 1967년 『새로운 시인들』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고백시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병리학적인 이상심리, 사실적 공격적 충동, 기계화된 문명 속에서 인간의 소외와 문명에 대한 부정, 나아가서는 금기시되어왔던 성적인 타부 등의 내용을 담은 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백시를 일명 열린시, 경험시, 참여시 혹은 폭로시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로젠탈은 나중에 고백시

* 이 논문은 2010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형태의 시에 대하여 “새로운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심리적 위기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인 자신의 은밀한 삶이다. 이따금, 시인 자신의 심리적 위기가 국가적, 문화적 차원의 위기에 대한 상징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설명했다(25).

고백시의 특징으로는 우선,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시라는 것이다. 고백시는 개성의 회피가 아니라 개성의 표현이며, 시에서 퍼스너와 마스크를 없앴다.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시인의 익명성도 거부했다. 시적 표현으로는 시인의 경험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심상들을 사용하며,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한다. 시인의 사생활 자체가 주요 소재이며, 주로 고통스러운 가족 관계, 소외의 고통, 정신분열 등을 주제로 다룬다. 따라서 고백시에는 불행한 결혼생활, 정신병원과 감옥에 갇혔던 경험들이 고백된다. 더욱이 시인의 어둡고 은밀한 경험과 내면상태를 다루는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금기적 경험이나 감정 및 시인의 미친 내면 등이 주요 주제를 형성하는 것도 고백시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로월은 자신의 시집인 『인생연구』(*Life Studies*)에서 삶의 진실과 은밀한 내적 경험을 위에서 열거한 특징을 지닌 고백시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 관한 충격적이거나 임상적인 세부사항들을 부끄러움없이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의 작품에서 시적 화자와 시인은 동일하며 시의 소재 또한 시인의 사적인 경험이 대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인간관계나 가족상황을 중심으로 시 전체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엮어 가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걸어 온 삶의 단면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시의 자전적 내용은 가계와 학업, 생활, 종교와 자기 세대의 사회문제 등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고백시에는 실제로 생존했거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명이나 지명 등이 나온다. 요컨대 로월은 개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을 시에 옮기는 고백시를 쓴 것이다. 이는 삶의 진실한 모습을 예술화하는 시상이며 로월만이 지닌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의 시의 진정한 소재는 현실세계로부터 도피한 이상의 세계에 대한 상상의 시상이 아니라 그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의 경험에 바탕을 둔 현세적 시상이다. 단순한 기교를 탈피하며 경험을 다루는 시로의 복귀를 꾀하던 로월이 자신의 대표작 『인생연구』에서 채택한 경험세계는 자신과 가족의 삶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었다.

로월의 『인생연구』는 여러 해에 걸쳐서 발표된 후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진 것이지만, 시인의 자아탐색이라는 시집 전권에 흐르는 주제를 기승전결에 가깝게 구조화 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생연구』에 수록된 작품들의 상당수가 개별 작품으로서도 형식과 주제 양면에서 완결을 성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망할 때에도 구성과 주제의 연관성이 돋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체 시를 합일하는 부분과 부분은 작중 인물들의 대조와 어조를 통해서 시인의 내적 갈등과 고뇌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현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명사회의 정신적 양상을 반영하는 고백시의 구조적 특성과 기법을 지닌다.

로웰의 고백시 『인생연구』는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 한 미국 문명사회의 정신적 타락상과 개인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미국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세기의 현대 산업 사회는 급격한 과학 기술의 진보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루지만 인간의 정신은 오히려 기계주의와 물질주의에 지배당하고 억압되어 있다. 그는 개인이 소외 받고 억압당하는 이런 미국 문명 속에서 한 개인의 자아 인식 과정과 미국 문명의 정화 과정을 모색하고 있다. 한 시대의 사상, 정치, 사회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까지를 시의 주제로 포함한 『인생연구』에는 현대 문명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로젠탈(Rosenthal)은 현대 세계의 와해가 로웰의 삶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인생연구』를 이해했다(p. 145). 루드만(Rudman)은 『인생연구』를 폭력과 분열, 상실된 관계와 질서의 붕괴, 그리고 파괴에 관한 책이며,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위기의 시대에 처한 미국 사회의 소우주적 초상이라 일컬었다(65). 따라서 『인생연구』는 로웰의 자기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웰 개인의 정신적인 분열이라는 거울에 굴절된 사회와 국가, 현대 문명의 왜곡과 뒤틀림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많은 비평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웰의 연구는 주로 고백시에 대한 연구, 개인적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자아탐구, 그리고 전통적 가치 기준과 가치관의 붕괴에 따른 현대 사회상을 고찰하였을 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확장시켜 『인생연구』에 나타난 고백시의 특징 중 현대 문명사회의 1950년대 정신적 상황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작중 인물들을 통해 본 현대 문명 사회 비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인생연구』에 있는 그의 대표적인 시들을 분석하여 개개의 시 주제가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관해서도 논하겠다.

II. 본론

『인생연구』에서 로웰은 초기 시에 나타난 분노와 폭력적인 것에서 벗어나 익살스러우면서도 역설과 애상이 잘 배합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런 어조를 통해 현대 문명사회에 대한 개인적 혹은 문화적 혼란으로 겪는 정신적인 위기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구조는 시의 전체 구조적 통합을 위해 4부의 구조로 전개하여 하나의 장편시로 합일시키는 고백시의 구조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생연구』의 제1부에 실린「알프스를 넘어서」(“Beyond the Alps") 는 로웰의 현실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시이며 1950년대의 전반적인 정신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알프스를 넘어서」의 에피그라—“피우스 12세가 성모승천설을 교리로 정한 1950년 로마에서 파리로 가는 열차 안에서”는 과학과 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교 그리고 현대 정치적 폭력을 통해 현대의 정신적 풍토를 묘사하고 있다.

서구 문명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의 영적인 세계를 관장해 온 카톨릭 교회의 중심인 로마에서 현란한 현대문명의 상징적인 도시 파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읽고 음미하는 시인의 머릿속에는 서구의 종교와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가 교차되고 있다. 여행의 모티브를 시의 소재로 삼고 있는 3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에베레스트 원정에 실패한 스위스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통해 2차 대전 당시와 무쏠리니의 처참한 최후를 마치게 한 현대 정치적 폭력을 암시한다. 또한 현대 문명의 문화적, 정신적 위기와 고대 문명의 낙관주의를 역설적 어조와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그리고 있다.

교황청이 성모 승천을 신조로 채택했을 때
성 베드로 광장의 군중들은 열광하였다.
교황 폐하는 면도용 컵을 떨어뜨리고
귀 기울였다. 그분의 전기 면도는 가르랑거리고
애완용 카나리아는 왼손에서 지저귀었다.
과학의 등불은 부활하신 성모에게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대번의 기적으로
천사의 나래 달고, 밀림의 새처럼 화사한 모습!
허나 누가 이걸 믿고 누가 이해할 수 있었으랴?
순례자들은 그래도 성 베드로의 구리 덧신에 키스했다.
수령의 사형 받은 걷어 채인 맨 머리는 여전히 말을 했다.
하나님은 최후의 일격으로 백성들을 몰아가셨다—
성장한 위병들은, 아 피우스 교황이시어,
붐비는 사람들을 창을 기울여 밀었나이다....

When the Vaticans made Mary's Assumption dogma.
the crowds at San Piero scramed Papa.
The Holy Father dropped his shaving glass,
and listed. His electric razor purred,
his pet canary chirped on his left hand.
The lights of science couldn't hold a candle
to Mary risen—at one miraculous stroke,
angel-wing'd, gorgeous as a jungle bird!
But who believed this? Who could understand?
Pilgrims still kisses Saint Peter's brazen sandal.
The Duce's lynched, bare, booted skull still spoke.
God herded his people to the coup de grace—
the costumed Switzers slopped their pikes to push,
O Pius, through the monstrous human crush....[1]

[1] Robert Lowell, *Life Studies and for the Union Dea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pp. 7-8. 본 논문에서 인용한 시의 원문은 모두 이 시집에서 인용하였고, 앞으로는 책의 페이지만 기재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 시에서 묘사되는 교황에 대한 소묘는 신의 사제로서 신적인 권위와 경건함을 나타내기보다는 과학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세속적인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들은 어린아이처럼 “papa”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열광하지만 이는 신에 대한 종교적 열정이라기보다는 세속적 권위자인 교황에 대해 환호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종교적인 위안을 구하고자 교황에게 의존하지만 교황의 모습은 신을 대변하는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기보다 차라리 해학적이기까지 하다. 더구나 교황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새인 비둘기도 아닌 애완용 카나리아이다. 이렇게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대신 세속적 과학 문명의 상징인 전기면도기와 애완용 새 카나리아를 들고 있는 교황의 희극적 장면 묘사와 “밀림의 새처럼 화사한” 모습은 성모 승천의 기적보다는 “과학의 등불”의 우위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밀스(Mills)는 지적했다(p. 150).

위 시의 6행에서 9행에 이르는 부분은 종교적 교리와 과학의 이성적 사고가 상치됨이 뚜렷이 부각된다. 교황이 성모 승천을 기적으로 규정하지만 이성적 사고인 과학은 ‘허나 누가 이걸 믿고 누가 이해할 수 있었으랴’고 항변한다. 순례자들이 성 베드로의 구리 덧신에 입 맞추는 행위는 기독교의 이교적인 타락상을 시사한다. 이어 호위병들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창으로 밀어내는 장면의 묘사는 종교의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며 현대의 정치적 폭력과 산업주의 문명 그리고 과학과 종교사이의 배타적 혼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로웰이 「알프스를 넘어서」에서 시집 전체의 전주곡으로서 서구 문명과 종교에 내포된 와해와 불안정성을 점검하고 있다면, 제 1장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역사 속에 현현된 문명의 불만족과 그러한 문명 속에 실재하는 개인들의 갈등, 절망, 소외를 추적하고 있다. 「알프스를 넘어서」는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을 대비하여 종교의 타락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을 상실한 현대 문명사회를 비판하지만, 「은행가의 딸」(“The Banker's Daughter”)에서는 16세기 프랑스 왕비 마리 드 메리치(Marie de Merdici)의 무분별한 성생활을 통해 현대인의 도덕적 타락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은행가의 딸」은 문예부흥기 불안했던 프랑스 왕가의 가족 상황과 당대의 종교적, 정치적 혼란상을 압축하고 있다. 이태리 피렌체 메디치 가문은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하였는데, 정경유착의 일환으로 두 딸을 프랑스 왕에게 결혼시켰다. 그러므로 앙리 4세와 그의 두 번째 부인 마리 드 메디치의 결합은 두 가문의 이해관계만을 토대로 한 사랑이 없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마리는 신교도이면서 카톨릭 국가의 왕이었던 앙리 4세와 결혼하여 종교적, 정치적 불안과 혼란 속에서 지내다 남편이 암살당하는 비극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이 작품의 전반부는 당대 프랑스의 정치적 현실을 스케치하면서 정치적 위기와 개인 차원의 소외를 함축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는 잠자리에서 죽은 왕들의 운명을 두려워했다...
결국은 모살됐지만—
마차 바퀴에 간 식칼로
신경이 없으니 폐하 편히 쉬소서.
이제 합스부르크의 갈레온 선(船)은
금괴를 싣고 피니스터를 떠나지 않는다.
좀도둑질에 약탈하는 민주국가들과
바보 같은 신부와 허무주의 대공의 보조를 위해.
남편이여, 잠드소서. 거기 성 데니에서는
끌질한 서까래 받침과 카라라 사냥개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땅에 입을 맞출 때
이제 계절은 낫질하는 아이들의
웃어대는 원으로 순환한다.

He feared the fate of kings who died in sport.....
Murder cut him short—
a kitchen-knife honed on a carriage-wheel.

Your great nerve gone, Sire, sleep without a care.
No Hapsburg galleon coasts off Finisterre
with bars of bullion now to subsidize
the pilfering, pillaging democracies,
the pin-head priest, the nihilist grandee.
Sleep, sleep, my husband. There at Saint Denis,
the chiselled bolster and Carrara hound
show no emotion when we kiss the ground.
Now seasons cycle to the laughing ring
of scything children; (pp. 9-10)

르네상스기 프랑스 궁정의 삶을 통해 왕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자행된 정치적 폭력, 좀도둑질과 약탈을 일삼는 민주 국가, 어리석은 신부, 허무감에 사로잡힌 귀족들의 배금사상, 이기주의, 애인의 더듬거리는 손바닥,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낫질하는 어린아이의 비웃음처럼 허무한 것이다.

로월은 195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에 따른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소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이 시를 전개시켰다. 여기서 로월은 초기 시에 비해 보다 폭넓고 성숙된 시각을 가지고 미국의 역사적, 사회적, 정신적 상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찰했다.

미국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맞이한다. 그러나, 전쟁 이후 경제적 안정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미국 정부는 새로운 군국주의를 주창함으로써 매카시즘(McCarthyism)적인 정치 상황과 냉전 상태를 만들어 냈다. 이런 상황이 그의 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취임식 날: 1953년 1월 」(“Inauguration Day: January 1953")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에서 매카시즘으로 표상되는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감각적 이미지들을 동원하여 묘사되고 있다. 정적과 혹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미지들은 군사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살벌했던 50년대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기상도를 예리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묘사된 당대의 상황은 『인생연구』 후반부의 ‘진정제 맞은 50년대’라는 정치적 현실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뇌하는 자신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남북전쟁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대비하면서 미국의 부패한 정치적 현실과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의식의 빈곤을 다루고 있다.

눈은 스타이브산트를 파묻어 버렸다.
지하철은 천장을 두드렸다. 고가철도의
녹색 대들보가 3가로 돌진하는 소리
빈곤을 덮은 채 흰 모피로 신음하는
맨해튼의 단단한 항구....
말씀 선풍의 영점,
우리 군대의 신, 콜드 하버의
푸른 제신을 매장한 그랜트여!
말 탄 이여, 그대의 칼은 신이 났다!

The snow had buried Stuyvesant.
The subways drummed the vaults. I heard
the El's green girders charge on Third,
Manhattan's truss of adamant,
that groaned in ermine, slummed on want.....
Cyclonic zero of the word,
God of our armies, who interred
Cold Harbor's blue immortals, Grant!
Horseman, your sword is in the groove! (p. 11)

시인은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비교하면서 오늘의 미국의 상황이 군국주의적인 정치적 상황과 같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고층 건물이 즐비한 맨해튼(Manhattan)은 겉과 속이 다르게 빈곤에 찌들어 있다. 이러한 힘든 경제생활의 결과는 전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랜트 장군은 그에게 부여되었던 신뢰를 저버리고 그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1664년 뉴 암스테르담(New Amsterdam)을 정복한 인물이다(Hobsbaum, 1988, p. 76). 그의 정치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이제는 눈만이 그의 무덤을 덮고 있는 것이다. 남북 전쟁 당시의 격전지인 코울드 하버에 푸른 군복을 입은 불사신들(북군들)을 매장했던 군대의 신 그랜트 장군이 휘두른 그의 칼은 지금도 위세를 떨치고 있다.

얼음, 얼음. 우리의 바퀴는 움직일 줄 모른다.
보라, 땅이 없는 원자처럼 한결 같은 모양의
분열된 항성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공화국은 아이크를 부른다
마음에 영묘를 품고.

Ice, ice. Our wheels no longer move.
Look, the fixed stars, all just alike
as lack-land atoms, split apart,
and the Republic summons Ike,
the mausoleum in her heart. (p. 11)

당시 미국의 현실은 전쟁에 대한 증오, 부패한 현대 정치, 냉전과 반공 이데올로기 등을 상징하는 얼음으로 뒤덮인 역사의 수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별들은 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분열된 원자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질서 의식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때 공화국은 가슴에 거대한 무덤을 품고 아이젠하워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는 냉전 체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군국주의를 동원하여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가족과 국가에 나타난 분열상을 그려낸 이전의 작품과는 달리 「뮌헨에 감금된 미친 흑인 병사」 (“A Mad Negro Soldier Confined at Munich”)는 2차 대전의 희생자로서, 처절하게 소외된 흑인 병사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로웰 자신이 문명 속에서 이미 그 근원을 파악한 광기가 사회 문명에서 개인 차원으로 전이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문명 피해자들을 상징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시는 극적 독백의 형식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현대의 폭력, 성욕도착증, 기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미친 흑인 병사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시에서 미친 흑인 병사가 동료에게 두들겨 맞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적국의 독일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 병사는 감옥에서도 소외상태에 빠지며 탈출구로 아무런 윤리의식도 없이 육체적인 사랑으로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그를 환상 속으로 도피하게 만든다.

아이고, 아이고. 접촉에 불꽃 튀기는
트롤리 같은 그녀의 전격
발전소다!. . . 의사가 호명한다.
칼도 포크도 안 된다. 우리는 시계 앞에 줄을 선다.

습관의 노예, 멋있는 연준 모치들이
공기 조절한 어항 속에서 별빛처럼 돌진한다.
급식시간. 저능한 구두닦이
심장들이 개미 알 시주에 맥박이 뛰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Oh mama, mama, like a trolley pole
sparking at contact, her electric shock—
the power-house!... The doctor calls our roll—
no knives, no forks. We file before the clock,

and fancy minnows, slaves of habit, shoot
like starlight through their air-conditioned bowl.
It's time for feeding. Each subnormal boot—
black heart is pulsing to its ant-egg dole. (p. 12)

결과적으로 미친 흑인 병사는 전쟁 영웅이 아닌 동물과 급식을 받기 위해 시계 앞에 줄 서 있는 기계 같은 사람을 닮아간다. 심지어 이들은 '개미알'같이 형편없는 '먹이'를 분배 받고도 맥박이 뛰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위엄성이 동물처럼 길들여진 현대인의 노예적인 삶의 양상과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비평가 로버트 필립(Robert Philip)은 이러한 미친 흑인 병사의 모습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자(doppelganger)라고 말했다(p. 21). 다시 말해 미친 흑인 병사는 현재 살아있는 로웰에게 유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친 흑인 병사의 감옥에서의 소외 상태는 로웰이 삶을 살며 느끼는 소외감과 일치한다. 로웰 자신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독방에 수감되었고, 맥크린(McLean) 정신병원의 독방에도 수용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자아라는 독방 안에서 아주 깊은 덫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연구』는 여러 편을 한데 묶은 한 권의 시집이면서 동시에 한 편의 장시처럼 구조상의 완결성을 성취해내고 있다. 이 시집의 최종 작품 「스컹크 시간」("Skunk Hours")은 바로 이 『인생연구』의 전체를 압축하는 동시에 로웰 자신의 인생 연구의 결론, 즉 해결점을 이끌어낸다. 요컨대, 이 시는 『인생연구』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데, 이 시에서 시인은 사회의 정신적, 경제적, 윤리적 타락상을 스컹크라는 상징적 비유를 통해 묘사했다. 또한, 시인은 주변의 현실 상황을 묘사하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현대 문명의 정신적 타락상을 이 시에 투영했다.

「스컹크 시간」은 여덟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반부 네 개 연은 『인생연구』의 전체적인 구조처럼 문명과 문화의 기상도나 지형도를 보여주는 데에 할애되고, 나머지 네 개의 연은 전반부의 분위기나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로웰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찾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노틸러스 섬의 은둔자
상속인은 스파르타식 별장에서 여전히 겨울을 난다.
그녀의 양은 아직도 바다 위 풀밭을 뜯는다.
그녀의 아들은 주교다. 그녀의 농부는
우리 동네의 최고 행정위원,
그녀는 노망이 들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귀족적 은밀을
갈망하여
섬의 기슭에 접한 꼴사나운 것들을
모조리 사들여
타락시켜 버린다.

Nautilus Island's hermit
heiress still lives through winters in her Spartan cottage;
her sheep still graze above the sea.
Her son's a bishop. Her farmer
is first selectman in our village;
she's in her dotage.

Thirsting for
the hierarchic privacy
of Queen Victoria's century,
she buys up all
the eyesores facing her shore,
and lets them fall. (p. 94)

시인은 노틸러스 섬(Nautilus Island)의 해안 지방 묘사를 통하여 뉴잉글랜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틸러스 섬'이라는 지명은, 노틸러스의 단단한 이미지를 통해서 은둔해 사는 여인의 생활 방식과 그녀의 고립성을 적절하게 암시하고 있다(Gray, 1976, pp. 246-7). 노틸러스 섬에서 겨울을 보내는 상속녀인 노파가 등장하는데 그녀의 아들은 주교이고, 그녀의 농장 관리인은 그 마을의 수석 행정위원이다. 더욱이 시대 착오적인 삶 속에서 망령이 든 채 살아가는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귀족적인 은밀한 생활만을 갈망하는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자만으로 가득찬 인물이다. 그녀는 전 세기의 계급주의를 그리워하면서 현대인들이 보기에 꼴 사나운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녀가 쇠락해왔듯이 그것들을 퇴락하도록 내버려두는 전형적인 귀족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Cosgrave, 1970, p. 146). 여기에서 시인은 단순한 풍경을 통해 사회 구조의 전체가 썩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악셀로드(Axelrod)는 지적했다(p. 125).

이어서 로웰은 쇠퇴한 뉴 잉글랜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계절은 병들었다.
우리는 여름철 백만장자를 잃었다.
그는 엘 엘 빈 목록에서 뛰어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구 노트짜리 돛배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새우 잡이 어부들에게 경매되었다.
붉은 여우 얼룩이 블루 힐을 뒤덮었다.

이제 동성연애
실내 장식업자는 가을을 위해서 점포를 밝힌다.
그의 어망은 오렌지색 부표로 채워져 있고
구두 수선용 의자와 송곳도 오렌지색
사업에 돈이 따르지 않아서
결혼하겠단다.

The season's ill—
we've lost our summer millionaire,
who seemed to leap from an L. L. Bean
catalogue. His nine-knot yawl
was auctioned off to lobstermen.
A red fox stain covers Blue Hill.

And now our fairy
decorator brightens his shop for fall;
his fishnet's filled with orange cork,
orange, his cobbler's bench and awl;
there is no money in his work,
he's rather marry. (p. 94)

제 3연은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을 압축하고 있는데, 경제적 곤경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 경기가 원만할 리 없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결혼인데, 이는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기 위한 사랑이 전무한 전략적 결정이다. 게다가 그는 동성연애자인데, 실내 장식업자로서 가을을 대비하여 그의 상점을 오렌지 빛 코르크, 의자, 송곳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다. 이 장식품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실생활에 쓰던 생활 가구로써 부유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실내 장식품으로 사용될 뿐이다. 상점 주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푸념한다. 실내 장식업자인 그는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 즉 그의 삶을 통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왜곡되고 신성함마저도 사라진 미국 사회의 결혼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사랑의 결핍과 물질 만능과 배금사상에 젖은 시대 풍조에 대한 풍자이다. 여기서 시인이 그리고 있는 세계는 황무지의 상황이다. 이것은 시인 자신 가계의 몰락과 미국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변 인물의 유형을 다양하게 조명한 시인은 자만과 탐욕과 사랑의 부재로 인한 현대 문명사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이 시에서 비판하고 있다.

제 5, 6연에서는 시인 자신인 화자(I)가 등장하여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보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비판한다.

어느 어두운 밤
나의 튜더 포드는 언덕의 두개골을 오른다.
나는 정사용 자동차들을 보았다. 라이트를 끄고
서로 동체를 맞대고 모여 있었다
묘지가 도회의 시렁을 이룬 곳에...
내 정신은 이상하다.

자동차 라디오가 울린다.
“사랑, 오 경솔한 사랑아...” 나는 듣는다
내 병든 정신이 혈구 마디마디에서 흐느낌을,
내 손이 멱을 쥔 듯이...
내가 지옥이다.
아무도 없다.

One dark night,
my Tudor Ford climbed the hill's skull;
I watched for love-cars. Lights turned down,
they lay together, hull to hull,
where the graveyard shelves on the town...
My mind's not right.

A car radio bleats,
“Love O careless Love...” I hear
my ill-spirit sob in each blood cell,
as if my hand were at its throat...
I myself am hell,
nobody's here— (p. 95)

시인은 정신적 공허함과 황량감을 더해주는 어느 어두운 밤 예수님이 수난을 겪으신 골고다의 언덕을 연상시키는 ‘언덕의 두개골’을 오른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인이 본 것은 자동차 속에서 성행위를 즐기는 남녀의 세속적인 누추한 모습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기계적인 사랑의 유희에 탐닉하는 현대의 젊은이들을 보고 시인은 사랑마저 기계적인 성욕의 추구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의 혐오스러운 현실 앞에서 극도로 처절한 절망과 고뇌를 체험한다. 튜더 포드(Tudor Ford)는 튜더(Tudor) 왕조(1485-1603)의 튜더와 자동차 포드의 의미가 결합된 익살어인 ‘튜더 포드’의 의미로서 우아하고 위엄이 있는 옛날과 저속한 오늘날의 상업주의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튜더 포드라는 차 이름은 튜더라는 왕조의 이름을 통해서 빅토리아조의 사생활을 원하는 노틸러스 섬의 늙은 상속녀와 비슷한 시대착오적 상업주의를 의미하며, 이것은 회의에 빠져있는 시인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도덕성이 붕괴된 자신의 비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적인 삶을 고백하고 있다. 시인이 자동차로 언덕을 오르는 순간 아이러니컬하게 그의 마음은 하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Rudman, 1983, p. 89).

시인은 자동차 속에 누워 동체를 맞대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사랑이 진실이 아닌 빈 껍데기 사랑임을 말하고 있다. 숨이 막혀오는 답답함을 느낀 시인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게 된다. 일상적인 대중매체인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타락한 사회 내에서의 문화의 분열 상태를 암시한다(Yenser, 1975, p. 162). 자신의 병든 정신이 혈구마다 흐느끼는 도덕적 혼란의 상황에서 시인은 고통의 상태를 '내가 지옥이다'라는 구절로 강렬하게 절규한다.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의 절망은 역설적으로 절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한한 용기와 계략, 열정, 물러서지 않으려는 시인의 자세는 밀턴의 작품에 나타난 사탄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숙한 자아의 깨달음의 원동력이 된다. 로웰의 이러한 깨달음을 형상화한 이미지는 바로 괴이한 스컹크다. 절망적인 시인이 발견한 어미 스컹크는 새끼를 거느리고 두려움 없이 먹이를 찾는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단지 스컹크만이 찾고 있다.
달빛 속에서 먹을 것을,
메인 스트리트를 발바닥으로 행진한다.
트리니타리안 교회의
백악처럼 마른 방해석 첨탑 아래
흰 무늬, 발광한 눈의 빨간 불.

나는 우리 뒷 층계
꼭대기에 서서 짙은 공기를 마신다.
새끼를 일렬로 거느린 어미 스컹크가 쓰레기통을 뒤진다.
시어빠진 크림통에 쐐기꼴
머리를 처박으며, 살찐 꼬리를 늘어뜨린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을 것이다.

only skunks, that search
in the moonlight for a bite to eat.
They march on their soles up Main Street:
white stripes, moonstruck eyes' red fire
under the chalk-dry and spar spire
of the Trinitarian Church.

I stand on top
of our back steps and breathe the rich air—
a mother skunk with her column of kittens swills the garbage pail.
She jabs her wedge-head in a cup
of sour cream, drops her ostrich tail,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d will not scare. (p. 95)

이 시에서는 동물적 본능의 우세와 기독교적 영향력의 쇠퇴가 대조되어 있다. 스컹크의 '발광한 눈의 빨간 불'과 '백악처럼 마른'교회의 첨탑을 병치시킴으로써 로웰은 현대 문명의 타락성에 통렬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다(이 영걸, 1981, p. 159).

생명력의 상징인 스컹크의 발바닥은 인간의 병든 영혼(souls)과 야생 동물의 건강한 생명력이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시에 등장했다. 시인은 지저분하고 누추하지만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스컹크에게서 새로운 인생론적 의의를 발견했다. 어미 스컹크는 새끼들을 거느리고 교회 아래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신 크림통에 쐐기 머리를 박고는 아무 겁도 없이 무방비의 상태로 꼬리를 내린 채 먹이를 찾고 있다.

스컹크의 이런 행위는 당당하게 본능적 욕구만 충족하는 점에서 자동차 속에서 정사를 나누는 연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생명 보존을 위해 살아가는 두려움 없는 스컹크의 모습에서 시인은 강인한 생명력을 인식한다(Yenser, 1975, p. 163). 스컹크의 불굴의 의지에 감명 받은 시인은 스스로 목을 조이는 듯 한 지옥과 같은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 집의 뒷 계단에 서서 짙은 공기를 들여 마신다. 「스컹크 시간」은 바로 현재 시인이 살고 있는 짙은 악취가 가득 찬 공기의 시간이다. 여기서 시인은 스컹크의 양면성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양면성을 인식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스컹크처럼 권위도 없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거침없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황량한 사회이다. 다시 말해 시인은 스컹크처럼 어떠한 외부의 압력 아래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게 된다(Altieri, 1979, p. 67-8). 로웰이 그의 인생 연구의 여행을 「알프스를 넘어서」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도달한 「스컹크 시간」은 실존주의적인 긍정의 시간이며, 자아 해방의 시간으로 구질서와 문명, 그리고 자아의 붕괴로 시작하여 마침내 스컹크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끝을 맺는다(Rudman, 1983, p. 94). 「스컹크 시간」은 문명 비판적 자세와 고백적 소재가 잘 융합된 시로 삶의 기본적 모형을 시인의 투철한 통찰과 탁월한 언어 구사력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III. 결론

로버트 로웰 시의 소재와 양식은 미국 역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인 모습, 즉 미국 사회의 타락한 도덕상, 더 나아가서는 현대 문명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로웰의 대표적 시집인 『인생연구』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전후 한 미국 문명사회의 정신적 타락상과 개인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세기의 현대 산업 사회는 급격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지만 인간의 정신은 오히려 기계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배금주의에 지배당하고 억압되어 있다. 개인이 소외 받고 억압당하는 이런 미국의 현대 문명 속에서 한 개인의 자아 인식 과정과 현대 미국 문명의 정화 과정을 시인은 모색하고 있다. 한 시대의 사상, 정치, 사회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까지를 시의 주제로 삼은 『인생연구』에는 이러한 현대 문명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생연구』의 첫 시인 「알프스를 넘어서」에서 시인은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을 대비하여 종교의 타락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을 상실한 현대 문명사회를 비판한다. 「은행가의 딸」에서는 16세기 프랑스 왕비 마리 드 메리치의 무분별한 성생활을 통해 현대인의 성적, 도덕적 타락상을 탐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스컹크 시간」에서는 주변의 모든 도덕적 황량함에 대응하는 시인의 실존적 가치와 자세를 묘사하고 있다. 물질의 숭상, 배금주의, 동성연애자, 타락한 성도덕 등이 기독교적 심상과 더불어 강렬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강인한 도덕적 감수성을 지닌 로웰은 부패한 현대 문명에 압도되어 "나 자신이 지옥"이요 "손이 마치 목을 죄는 듯한"실존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스컹크 시간」에서 새끼 스컹크를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어미를 보면서 시인은 삶의 현장에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는 혼자만의 독자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삶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이며 이를 통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현실 상황에 대해 극기, 공감, 수용 할 수 있는 자세를 암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로웰의 고백시는 단순히 시인의 개인적 차원을 뛰어 넘어 시인 자신이 처한 문명과 역사에 대한 예리한 비판 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버트 로웰의 『인생연구』에 나타난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은 1950년대의 정신적 상황, 또 소년기 시인의 가계인물들을 중심으로 현대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적 요소들과 마지막으로 시인의 작중 인물들에 나타난 물질만능주의와 타락한 도덕적 현실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로웰은 개인적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회에 나타난 여러가지 갈등,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기존의 가치 기준이 해체됨에 따라 도덕적인 혼란이 가중된 시기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시적 지평선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양심 그리고 고백시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현대 시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이영걸. (1981). *영미시와 한국시*. 서울: 문학과 예술사.

Altieri, C. (1979). *Robert Lowell and the difficulties of escaping modernism.* Bucknell: Bucknell University Press.

Axelrod, S. G. (1978). *Robert Lowell: Life and A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xelrod, S. G., & Helen, D. (Ed.). (1986). *Robert Lowell: Essays on the poe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sgrave, P. (1970). *The public poetry of Robert Lowell*. London: Victor Gollanz Ltd.

Gray, R. (1976). *American poetry of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bsbaum, P. (1988). *A reader's guide to Robert Lowell*. London: Thames & Hudson.

Lowell, R. (2007). *Life Studies and For the Union Dea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Mills, R. J. (1966). *Contemporary American poetry*. New York: Random House.

Philips, R. (1973). *The confessional poets*. Carbondale Edwardsvill: Southern Illinois Press.

Rosenthal, M. L. (1967). *The new poets*: *American and British poetry since World War 2*. New York 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Rudman, M. (1983). *Robert Lowell*: *An introduction to poet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Yenser, S. (1975). *Circle to circle*: *The poetry of Robert Lowell*.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양현철
나사렛대학교 영어학과
330-0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Tel: 041-570-7966
Email: hcyang@kornu.ac.kr

Received in July 14, 2010
Reviewed in August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15, 20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